

코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없이는 세이브존 오픈도 없다!



〈3월 3일 단식 23일차〉

지난 해 5월 22일,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이 고용승계투쟁을 시작한지 어느새 10개월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창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간증까지 한 바 있다. 좋은 일자리는커녕, 노조와 맺은 고용승계 단협마저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것이 바로 자본가의 본질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열악한 근로조건, 비인간적 대우, 장시간 연장근무 등... 십 수년 간 노예처럼 일해 온 노동자들은 소품으로 버려졌다. 절박하고도 정당한 실력행사인 공사저지투쟁으로 영업 개시가 늦어지자 공사지연에 따른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를 남발함으로써 투쟁의지를 꺾고, 조합원들을 회유/협박 하여 투쟁대오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자본의 충견인 시청, 경찰, 고용노동부는 오로지 자본을 비호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악랄한 탄압에 맞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었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노동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이미 한 달을 넘어섰다. 피골이 상접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09년 쌍차투쟁의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떠오른다. 쌍용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중 14명이 자살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하는가? 단지 일하고 싶을 뿐인 노동자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자본가 세상! 언제까지 저들의 노예로 살 수는 없다. 반격해야 한다. 우리의 힘을, 노동자의 힘을 자본가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코아백화점을 인수한 '세이브존 I&C'가 3월 중순 영업을 시작한다. 고용승계 없이는 단 하루도 장사를 할 수 없음을 보여주자. ‘필요 직원 300명 중 50명만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 및 외주용역으로 채우겠다’는 세이브존의 노골적 노동유연화에 맞서 전면전을 전개해야 한다. 같은 비정규직 문제라는 점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연대 역시 중요하다.

현대차 비정규직투쟁, 한진중공업 투쟁, 2000일이 넘는 재능교육 투쟁, 그리고 버스파업, 어느 곳 하나 우리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곳이 없다. 스스로를 위해 만든 법조차 언제라도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본가들을 강제하는 방법은 오직 강철 같은 단결과 연대 뿐이다.

죽기를 각오한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을 위해,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지들께 부탁드립니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가슴에 새기고 코아동지들의 고용승계쟁취를 위해 나서자! 고용승계 없이는 세이브존 오픈도 없다!

■ 민주노조 건설, 최저임금쟁취! 택시노동자들이여, 일어서자! ■

● 문제는 자본주의다!

전북 택시노동자들이 어용노조를 박차고 투쟁한지 1년이 넘었다. 그리고 이 투쟁의 결과 전북 택시자본가들에게 불성실교섭에 대한 벌금이 떨어졌다. 자본가들은 불성실교섭에 대한 간접강제금 부과가 두려워 교섭에 나왔고, 우리는 끈질긴 투쟁 끝에 민주노조를 사수한 것이다. 이미 초기업적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수십 건에 이르지만 당시 노동부장관은 ‘한 기업 내에 두 개의 노조는 무조건 복수노조’라고 우겨댔다. 이렇게 택시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더니 이제는 버스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온 지 3개월이 넘었다. 이윤을 위해, 스스로 만든 법원판례마저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 지배계급이다. 착취를 위해 어떤 추악한 일도 가리지 않는 체제자체를 뒤짚어야 한다!

● 택시 자본가, 노동청, 시청에 맞서 싸우자!

택시노동자는 최저임금 4,320원에도 턱없이 모자란 시급 3,195원을 받는다. 작년 7월 1일, 택시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전주 22개 택시사업장 중 최저임금제가 취지에 맞게 지켜지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심지어 2개 사업장은 최저임금제 도입과 함께 사납금을 훨씬 더 높게 올려버렸다. 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 고용노동부는 택시자본을 비호해왔을 뿐이고, 택시면허권, 지도관리권을 가진 시청 역시 어떤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 택시최저임금제 쟁취를 위해 투쟁하자. 자본가, 노동청, 시청에 맞서서!



〈3월 2일 택시노동자 투쟁선포식〉

● 스스로의 현장에서 민주노조건설로 나아가자!

군산의 평화/백마/안전 3개사가 3월1일부터 사납금을 5천원 인하했다. 이는 택시노동자에게 월 12만원 가량 임금인상효과를 가진다. 자본가들이 알아서 임금을 올리다니, 대체 무슨 일인가? 평화/백마/안전교통 등은 올해 운행율이 심하게 감소했다. 사납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퇴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전북택시 일반노조 소속 천사택시는 파업을 통해 사고수리비 전가를 근절시켰고, 사납금도 5천원이 낮다. 그 결과 타 사업장 노동자들이 천사택시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평화/백마/안전교통 등에서 일을 그만두는 노동자가 늘어가는 동시에, 현장을 바꿔야 한다는 외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현실 앞에 자본가들은 천사택시 임단협 수준으로 임금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투쟁 없이 쟁취한 임금인상, 그 성과가 오래 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투쟁은 스스로의 현장에서 벌어져야 한다!

● 버스노동자들이 길을 보여주었다!

20만 법인택시노동자들에게, 이제 최저임금투쟁은 사활적 문제가 되었다. 6월 말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연말 택시 임단투의 주요 근거이기 때문이다. 지금 들불처럼 번지는 청소 비정규직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자! 이 동지들과 함께 이후 최저임금제를 전 계급의 투쟁으로 만들자!

택시와 버스노동자들이 동시에 민주노조 건설로 일어섰다면 얼마나 위력적이었을까! 버스 노동자들이 길을 보여주었다. 택시동지들! 전북택시 일반노조와 함께 민주노조를 건설하자! 최저임금제를 쟁취하자!

지역총파업,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치자 “합법불법 가리지 말고 투쟁하자”

전북버스노동자들은 국민도 아니다.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버스노동자들에게는 소용없다. “산별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노동위원회의 “버스사업주는 성실교섭에 임하라”는 권고도 무시당하고 있다. KBS 새노조도, 전북택시일반노조도 버스와 똑같은 사안이지만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교섭도 하고 있다. 유독 버스 악질 사업주들만 헌법과 대법원 판결조차 지키는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버스사업주는 이렇게 배짱부리며 활개치고 있는 것은 ‘의좋은 형제’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노동자의 5적(악질 사업주, 한국노총, 검찰·경찰, 시장·도지사, 민주당)이 그 작자들이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5적을 쓰러뜨려야 한다.

▶ 5적을 처단하자

3월 9일 두 번째 침탈을 당했다.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인 버스, 파업의 무기인 버스를 모두 탈취당했다. 1차 침탈 때와 똑같이 전국에서 ‘견’ 찰이 급파되었다. 버스 사장을 돕는 데에는 지배계급 전체가 한통속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옷통 벗고 수 천의 경찰에 맞서 싸웠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수백의 조합원과 연대대오는 피눈물을 흘리며 개 끌려가듯 끌려나왔다. 견찰은 개답게 진압하기 위해 돌도 안 지난 어린애를 빼앗기도 했다. 악질 버스사업주를 도와주기 위한 진압인데 무엇인들 못하리. 통한의 눈물을 흘린 조합원들은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의 의견을 겨우 추스리며 법 테두리 안에서만 투쟁을 했던 지도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선언했다.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침탈 뒤에 바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섭을 위해 양보의 양보를 했다. 합법적으로 투쟁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의사도 억누르며 합법적인 투쟁만 했다. 이제 합법불법 안가리고 투쟁하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렇다. 지금부터라도 교섭을 위해 양보한 것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고 투쟁의지를 되새겨야 한다. 이제부터 더 이상 속절없이 당하는 투쟁을 해선 안된다. 노동자는 노동자의 투쟁방식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5적을 처단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론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 여론에서 승리했지만 현실에서 승리 못하고 있다

파업 100일로 치닫는 지금, 우리 분명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론은 악질사업주 만행과 불법 정경유착, 무능력한 시장·도지사, 지들 안방에서조차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민주당에게 등 돌리고 있다. 반면 개학과 함께 버스파업에 등 돌릴 것으로 예상했던 노동자, 민중,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버스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전의 승리가 현실에서의 승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여론에서 승리가 현실에서의 승리라면 이명박은 예전에 청와대에서 쫓겨났을 것이며 모든 비정규직 투쟁은 승리했을 것이다. 우리 여론전에서 이기고 현실에서 패배한 투쟁을 여러 번 경험했다. 국민 84% 지지한 발전노조 파업이 그러했고, 울산 시민 89% “교섭에 응하라”고 했던 울산비정규직지회의 점거투쟁도 승리하지 못한 채 공장점거농성을 풀어야 했다.

분명 우위에 있는 여론을 활용해 ‘사업권 환수, 완전공영제 도입’을 시장, 도지사에게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여론전을 위해 노동자의 투쟁방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승리로 진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무기 지역총파업, 연대총파업 조직화로 나가야 한다.

▶ 지역총파업을 조직하자

지금 전북지역은 버스파업 외에 미해결 투쟁사업장으로 넘쳐나고 있다. 사쪽과 자본의 풀마니가 된 도청·시청, 고용노동청 관료, 검·경찰들이 한통속으로 탄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버스파업이 진다면 전북은 노동자의 무덤이 될 것이다. 무엇 하나 양보하지 않고 해고를 일삼는 사장놈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검·경찰에 구속될 것이며, 고용노동청 관료에게 무시당할 것이다.

동지들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 버스파업의 승패 여부가 전북지역의 노동-자본의 역관계를 규정할 것이라는 점을.

동지들! 버스파업의 승리는 전북지역 노동자들의 승리다. 버스파업의 패배는 전북노동자들의 무덤이다. 더 이상 버스노동자들이 외롭게 대리전을 치르도록 놓아두지 말자. 버스노동자들의 100일간의 영웅적인 투쟁을 칭송한다면 이제, 승리를 위한 실질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하자.

공공운수노조(준)는 채권발행 전에 1억을, 민주노총은 2억을 선지급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올바른 결정이다. 그렇지만 버스파업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몇 억의 돈이 아니라 버스노동자들의 외로운 투쟁이 아닌 지역노동자들의 투쟁, 더 나아가 민주노총이 총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쳐야만 가능하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승리를 위한 지역총파업, 민주노총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전진하자.

다시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시키는 투쟁에 나서자!

▶ 징계해고를 박살내는 것은 또 한번의 비정규직철폐투쟁이어야 한다!

작년 7월 22일 대법원 승소판결에 이어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승소판결은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또 한번 법적으로 확인했다. 현대차 자본은 최병승 동지의 판결이 한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며 기각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했고,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기다려보자던 이들이, 이제는 개인에 대한 판결이니 모두가 판결을 받아오라하고, 파기환송심도 최종판결이 아니라 한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지회에게 무차별적인 징계를 퍼붓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울산지회 조합원들에게 해고 44명, 정직 300여명, 아산지회 조합원들에게 해고 13명, 정직 99여명, 감봉 100여명의 중징계를 했다. 저들은 전주지회에 대한 징계는 미루고 있지만, 울산과 아산을 밟아 깨고 나면 분명히 전주로 칼날을 돌릴 것이다. 저들은 지리한 법원송사로 시간을 끌면서 징계로 현장을 초토화하고,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아예 멸균 작업하듯 끝장내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아산이 9일 총회에서 2차 파업의 잠정중단을 결정한 지금, 분명 국면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건 또 한번의 결전을 우회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회의 투쟁력/조직력을 2010년 7월 22일 이전으로 되돌릴 것이다.

▶ 전주지회, 투쟁의 구심점으로 우뚝서야 한다!

울산지회는 새로운 집행부를 만들어가는 과도기에 있고 아산은 라인을 장악할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전주는 그만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 징계를 하게 된다면 전주지회가 라인을 장악하고 투쟁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일 징계에 맞선 연대파업을 결의해 달라는 아산지회의 요청으로 열린 전주지회 쟁대위는 ‘기존의 결정에 따라 징계가 진행된다면 파업투쟁을 한다’는 아쉬운 결정을 내리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투쟁의 구심점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보아야한다. 지금 투쟁의 구심점은 분명 전주지회에 있다. 전주지회가 울산과 아산의 징계에 맞서 연대투쟁을 결의하지 못한다면 이후 3지회의 조직력은 모래알로 쌓은 성이될 것이다. 전주지회는 바로 지금, 연대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 지금 투쟁을 불붙이지 못하면 법은 개악된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교섭해서 회사가 정규직화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투쟁하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동지들! 정권과 사측의 행태가 보이지 않는가? 제조업 파견을 합법으로 바꿔놓겠다고 발악하는 MB와 MK, 경총과 전경련이 보이지 않는가? 기억하자! 저들은 파견법 개악을 그토록 원해왔다는 것을! 만에 하나 2차 파업이 불발로 돌아가고, 현장이 징계와 해고에 초토화된다면, 저들은 분명 파견법 개악을 밀어부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누가 그것을 저지할 수 있겠는가? 동지들의 투쟁을 억압해왔던 이경훈 집행부가?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다시 싸움을 준비하자!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를 추천하며 “제대로 한 평가 없이는 패배한 역사는 반복한다”



나는 현대중공업 해고자다. 노동해방이 가능함을 알고 투쟁한 죄로 3번의 구속, 3번의 해고를 당했다. 그토록 찬란했던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96-97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01년 화성 3사 투쟁, 박일수(현대중공업사내하청) 열사투쟁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다.

우리,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친 1세대 민주노조활동가들은 ‘평가’를 꼭 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운동을 배웠다. 승리건 패배건 늘 조합원들에 의해 평가되었고, 그 속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기도 했다. 그렇게 민주노조운동은 계급의식을 싹틔웠다. 또한, 늘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해온 노동단체, 정치조직들도 평가의 한 주체였고 평가서를 제출했다. 오히려 평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조직은 ‘무능하고 게으르다’는 현장

의 비판을 받았다. 민주노조운동은 노동단체, 정치조직과 함께 함으로써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내가 살아온 울산의 활동가들 중 노동단체, 정치조직 3~4곳 섭렵하지 않은 동지들이 있는가!

안타깝다. 내 젊음을 바친 민주노조운동은 관료화되고 있다. 어느 새 노동조합도, 단체도, 정치조직도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자본가정권에 맞서서 뿐 아니라, 내 사업장 현대중공업처럼 어용노조와도 싸워야 하고, 노조관료들과도 투쟁해야 하는데도, 눈치보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결코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시기에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을 기록한 사노위 평가서가 나와 숙독했다. 이 평가서는 노동자정치에 기초해 있다. 재파업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둔 평가서이다. 따라서 평가서는 비정규직 3지회 동지들의 영웅적인 25일간의 투쟁을 찬양만 하지 않는다. 이 평가서는 재파업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관계를 제대로 봐야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활동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경훈 지부장, 박유기 위원장에 대한 비판, 야4당 중재안 비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상수 지회장의 한계, 강성희 지회장의 오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평가하고 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 객관적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진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와 논쟁이 많아져야 한다. 치부를 덮어두고 좋은 말을 주고 받는것이 단결은 아니다. 스스로 비판하고, 비판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가와 논쟁 속에 더욱 단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몸으로 배워왔다.

나는 늘 현대자동차의 평가와 논쟁, 다양한 현장조직을 부러워했다. 현대자동차노조보다 강력했던, 내 청춘을 바친 현대중공업노조의 몰락도 다양한 평가와 논쟁의 부재가 중요한 원인이었다.

기필코 승리할 비정규직 동지들, 그 투쟁에 연대할 정규직활동가 동지들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볼 것을 권유한다.

— 현대중공업 해고자 조돈희 —

우리는 때로는 승리한 투쟁에서보다 이기지 못한 투쟁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한다. 우리 시대 노동자들의 절절한 염원의 분출구였던 현대차비정규직 철폐투쟁이 어떻게 준비됐고 투쟁했는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것만큼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이 보고서는 역사의 한 증거로 남을 것이다. 과장된 무용담이 아닌 담백한 필치로 피아의 한계와 오류를 그려낸 만큼 다시 투쟁을 준비하는 모든 노동자와 활동가들은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 진보신당 전북도당 정책국장 김동균 —

“솔직히 동지들이 같이 파업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북고속 남상훈 비대위원장 인터뷰

전북고속 남상훈 비대위원장(이하 남), 황태훈 상황실장(이하 황)
사노위 운수분회장 이삼형(이하 이)

■일시 및 장소 : 3월 9일 수요일 저녁 8시, 전북고속 근처.
■정리 : 사노위 전북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백종성



• 이 : 사노위 운수분회장이다. 먼저, 어떻게 일을 시작했는지 궁금 하다.

• 남 : 57년 닭띠, 16살에 승무원으로 시작했고, 제대 후에도 승무원을 계속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데 면허증을 따면 나도 운전기사하게 될 것 같아 면허는 안 땀다. 운전기사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면허가 상당히 늦다. 30살 다 되서... 87년부터 버스를 운전했다.

• 이 : 어떻게 오랜 한국노총 어용노조를 박차고 나오게 되었나?

• 남 : 재작년 9월 23일 당선된 사람이 야당(비주류)이었고, 기대를 많이 했다. 그런데 취임인사가 “나 안찍은 사람 어떻게 되나보자”였다. 그러더니 3달간 106명을 징계했다. 결국 탄핵안을 걸고 총회소집을 요구했다. 그렇게 불신임투표를 하게 되었다. 90%는 우리 편이라고 봤다. 그런데 11표 차이로 졌다. 회사 측에서 개입한 것이다. 1/3 이상이 한국노총을 탈퇴하면 단체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1/3을 조직하는데, 정말 피가 마르더라. 저도 처음해보는 거고...



• 이 : 파업투쟁 전후로 노동부, 시청, 도청,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나?

• 남 : 노동부는 그냥 노동자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았고... 지금은 그냥 좀 무시한다고 할까? 경찰, 시청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 황 : 저번에 하종강 선생에게 “불만한 노동에 대한 책이 있으면 제 목을 써주십시오” 했더니, ‘노동자는 선이다’ 이렇게 써주시더라. 그게 뭔 소린지 계속 생각해보니 지금 파업하는 우리들 애기더라. 어용이 뭔지도 모르고, 회사 눈밖에 안 나려고 발버둥치는 인생.... 싸우면서, 눈을 번쩍떴다.

• 이 : 시민들이 우호적인데,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는가?

• 남 : 시민들이 정치적인 일에 무관심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 했다는 것이다.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 투쟁이 역사에 남을 수도 있고... 모두 버스노동자들처럼 투쟁하면 세상도 바꾸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한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자 중심적인 뭔가를 우리가 실현한다는 느낌.

• 황 : 행진하면서 토호와 시도당국의 유착을 알려내었고, 시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시민들 스스로가 겪는 불편 때문이라도, 스스로 진실을 알고 싶어했다고 본다. 파업 없을 때 백날 떠돌아야 사람들이 관심이나 가지겠나?

• 이 : 버스파업이 정말 많은 것을 바꾼 것 같다.

• 황 : 정말 이제야 가치있는 일을 찾았다는 것.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세력으로 거듭났다는 것이다.

• 이 : 벌써 3달이 넘었다. 힘들지는 않은가?

• 남 : 전북고속은 작년 여름부터 농성만 242일째다. 이제는 투쟁기금 내놓으란 말도 못하겠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 황 : 조합원들은 굳건하다. 힘들어도,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진실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 이 : 조합원들이 열기가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이유는?

• 남 : 너무 억울했다. 사측의 최저임금, 통상임금 갈취문제도 있다. 이렇게 투쟁하는 덕을 지금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보고있다. 사 고수리비도 이제 공제조합에서 처리한다.

• 이 : 2월 25일 동지의 시청발언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 어떤 심정이었는가?

• 남 : 집회는 많이 했지만 전국노동자대회는 처음이었다. 최소 1만명은 올 줄 알았다. 많이 오면 2-3만은 올 줄 알았다. 전북고속을 지나다가, 정말 한번 붙을 줄 알았다. 몸도 지쳐있었고, 맘도 지쳐있었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다.

• 이 : 장기투쟁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은?

• 남 : 우리가 훈련된 군대도 아니고, 각자 자기개성도 강해서, 이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최일선에서, 그냥 바보처럼 한다. 제가 박헌영을 좋아하는데, 일제시대에 붙잡혔는데 풀려나기 위해 미친 척 하려고 똥을 먹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다시 싸우려고 말이다. 대단하지 않은가? 이런 정신을 배우고 싶다.

• 이 : 앞으로 어떤 지점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황 : 노동자는 한 번도 평등을 느껴본 적이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크게 하나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크게 연대해야 한다. 그럼 그 투쟁은 분명히 이길 것이고, 그 성과가 전체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을 반자본주의적 확산운동으로 깨우칠 것이다.

• 이 : 시민사회대책위에서는 완전공영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 남 : 사장들은 적자라고 죽는소리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게, 전북고속은 주식회사라 대표이사를 선출하는데, 왜 적자회사에 사장하려고 피터지게 싸우나? 보조금 정산서 하나 없다.

• 이 : 완전공영제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 남 : 우리가 하루에 편도로 3-4번 왔다갔다 한다. 그런데 버스에 편도노선당 10명만 태워도 하루에 버스 한 대당 50만원이 들어온다. 한 달이면 버스 한 대당 천5백만원, 엄청난 거다. 이걸 빼먹으면서 적자라니 말이 되는가? 완전공영제 꼭 해야한다.

• 이 : 완전공영제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국가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경우, 말하자면 국가가 지명한 법정관리인이 관리를 하는 건데, 착취구조는 존속한다. 완전공영제를 하되, 경영은 노동자, 시민이 해야하지 않겠는가.

• 남 : 노동자와 시민이 꼭 참여해야한다. 전북고속에는 버스에 대한 주주들도 있는데, 한군데만 고치면 되는 걸 통째로 갈아 끼우고, 나머지는 버리는 경우도 봤다. 또 부속품 가게에서 로비를 하더라. 그러다보니 허위지출이 많다. 운영을 노동조합이 관리하고, 시민은 총지출입을 관리해서,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전북고속이 작은 회사가 아니다. 많게는 버스 한대가 한달에 2400도 번다.

• 이 : 고생이 너무 많다. 다른 곳에서 함께 파업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없나?

• 남 : 솔직히 동지들이 같이 파업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버스 사업장을 넘어서 다른 사업장에서 함께 파업한다는 상상이 잘 안되기는 한다. 그래도 한번 같이 싸웠으면 좋겠다.

